

# 출장보고서

## 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채욱
2. 출장기간: 2009. 11. 4 ~ 11. 6
3. 출장지: 일본 도쿄
4. 출장목적: 일본 민주당의 EPA 정책 파악 및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지역연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인터뷰

## II. 출장일정

| 일자       | 행선지                | 활동사항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09-11-04 | 동경                 | 출국   |
| 09-11-04 |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 교수 예방 | 면담   |
| 09-11-05 | 외무성, 경제산업성, 경단련 예방 | 면담   |
| 09-11-06 | 아시아경제연구소 방문        | 면담   |
| 09-11-06 | 서울                 | 귀국   |

## III. 활동 내용

1.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

☐ 방문일시

- 2009년 11월 4일 오후 3시

☐ 면담내용

- 민주당 집권 이래 일본은 마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
- o 민주당에 의해 이전 시스템이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으로서 혼란이 극에 달해 있음.
- o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의 구호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민주당의 관료장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. 민주당이 경험의 미약하여 불가피하게 관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- 민주당의 EPA 정책도 여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며,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부처간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임.
-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부정이나 주식차익의 탈세 등과 같은 스캔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. 일본 국민들은 그가 상당한 부자라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.

## 2. 외무성 기라 정무관

### ☐ 방문일시

- 2009년 11월 5일 11시 30분

### ☐ 면담 내용

-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나라는 한국으로서, 일한 EPA는 아시

아의 번영에도 유익하므로 협력을 원함.

o 신속히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.

o 신 정부는 국익을 중시하는 동시에 ‘우애외교’를 통해 서로 win-win이 되길 바라는 것이 신 정부의 진심이므로 지금이야말로 한일관계가 잘 될 수 있는 기회임.

- 동아시아공동체에 대양주도 포함되나 한중일 삼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핵심임.

- 삼국의 국내정치문제가 존재하므로 아직 큰 진전은 없으나 이미 삼국은 서로의 존재가 없이는 존립 어려운 단계에 와 있음.

- 일본은 이미 무역보다 투자를 통한 경제이익이 더 커진 상태이며, 한일간에는 서로 투자하는 단계가 되었으므로 투자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. 따라서 삼국이 중핵이 되어 모범을 보이면서 동아시아로 이를 확대해야 함.

- 본인은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종합상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현대, 대우 등과 경쟁하면서도 필요시 협력하는 관계임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양국관계에도 적용 가능함.

o 한일 EPA는 물론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개발, 아프가니스탄 지원 협력, 개발협력 등에서 양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야 함.

- 일본 EPA 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

- o 솔직히 지금까지는 일본 농업 보호기조가 강했으나 민주당은 EPA 추진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.
- o 그러나 농업보호가 당연하다는 국내의 인식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.
- o 한일 FTA에 대한 한국내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원함.

3. 경제산업성 오카다 통상정책국장

☐ 방문일시

- 2009년 11월 5일 15시 30분

☐ 주요 내용

- 일본의 한중일 FTA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입장

- o 한중일 FTA에 대해 성별로 다소 견해가 다른 듯이 보일 지 모르나 이에 관해 경산성뿐 아니라 일본 외무성도 관심 있음.
- o 단, 한일 FTA는 이미 교섭이 시작된 뒤 중단상태이고 한중일은 아직 산관학 공동연구도 출범하지 않은 상태라는 진전단계의 차이가 있어서 후자에 대해 좀 더 속도를 내자는 것임.
- o 삼국 FTA는 양자간 FTA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므로 협상을

시작하더라도 양자보다 진전이 더딜 것임.

- o 그런 점에서 삼국 FTA를 개시하는 것이 양자간 FTA 추진하지 못하는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.
- 한일 FTA를 둘러싼 한국내의 현안
  - o 한국이 대일무역적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그 때문에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음. 그러나 일본의 부품소재 공급없이는 한국도 곤란할 것이므로 한국이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.
  - o 예를 들어, 삼성이나 LG는 지난 1-2년간 No. 1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되었음.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품소재기업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함.
- 일중 FTA의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생각함. 민주당의 농업정책은 적어도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임. 민주당의 호별농가소득보장제도는 오자와의 아이디어임.
- 한중일 FTA와 한일 FTA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.
- 민주당의 온실가스 감축목표(25% 감축) 제시할 때 어떠한 타당성 조사도 뒷받침되지 않았음.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은 탄소세 도입만 언급하고 있음.

#### 4. 경단련 사누이 상무이사

##### ☐ 방문일시

- 2009년 11월 5일 4시 30분

##### ☐ 주요 내용

- 경단련은 지역의 통상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은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함.
- 지역경제통합의 큰 공백이 한일 FTA라고 생각하는데 양국 제거나 정계의 상층에서는 늘 한일 FTA를 찬성하나 실제 별 진전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 중임.
- 한국이 대일무역적자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산업협력을 요망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산업협력이 잘 되고 있음. 단적으로 양국간 부품소재 견본시 개최 성공적이었음.
- 한중일 FTA 산관학공동연구 개시는 정상회의 합의사항으로서, 현재 한중일 BIT는 90% 완성되었으며 한중일은 세계 GDP의 20%를 넘기 때문에 삼국이 매우 잘 해야 함.
- 일본시장에서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음. 상사 중에는 한국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재개한 곳도 있으며 쿨슈 자동차 cluster에서도 한국산 부품을 수입해 사용 중임.
- 4월 한일 정상회담시에는 한일 FTA 전망이 밝았으나 서틀외교 때는 후퇴한 느낌이었고 10월 정상회의때는 더 후퇴한 느낌임.

- 한국에서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산업협력이 매우 중요함. 단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한국측의 과제도 있음. 한국의 오너경영과 미국적 경영풍토로 인해 사람을 키우려는 인식이 약한 듯 함. 기술을 가르쳐도 금방 퇴사해 버리거나 대립적 노사관계의 존재도 문제임. 일본에선 경영자에서 일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품질 ‘개선’ 의지가 강함.
- 한국제품이 일본시장에서 잘 안팔리는 이유는 마케팅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함. 일본은 한국에 비해 부품수가 많은 제품에서 강한 경쟁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함.
- 일본 제국은 아직 한중일 FTA나 일중 FTA보다 한일 FTA를 선호함. 다만 한일 FTA가 잘 진전되지 않으니까 한중일 FTA를 거론하는 것이며, 일중 FTA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음.

## 5. 아시아경제연구소(IDE) 마루야 이사장 등

### ☐ 방문일시

- 2009년 11월 6일 오전 10시

### ☐ 주요 내용

- 아프리카 협력에 대한 한일 양국 및 양 연구기관의 공조 희망
  - o 현재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매우 공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.

- 이에 IDE 한 연구원이 3년 전부터 일본과 중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비교연구 수행 중임. 이에 한국도 추가하여 삼국간 비교연구를 희망함.
- 2010년 2월 10일 전후에 도쿄에서 심포지엄 개최 예정이므로 KIEP의 전문가도 2명 초청하고 싶음.
- IDE는 기초연구를 중시해 왔으나 최근 정책연구에 대한 외부의 요청이 많아지는 추세임. 그러나 KIEP처럼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용역연구를 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임.
- 점차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 2억 엔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예산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- IDE의 한국연구자는 해외 파견 연구자 포함 총 5명
  - 아베 마코토: 한국의 산업과 기업연구. 현재는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제철의 구조변화에 대해 연구 중
  - 오쿠다: 한국 FTA 정책, 소득분배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. 내년에 개인소득과 GDP 성장과의 관계 계량분석 계획 중
- IDE의 중점 연구지역은 아프리카이며,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 중임.